‘곡성 백세미’ 대박…“두배 비싸도 잘 팔린다”

누룽지 향 나는 유기농쌀 인식 10kg 기준 5만원에도 인기
지난 설 이전 20일간 소포장 선물용 9000만원어치 팔려

누룽지 향 나는 ‘곡성 백세미’가 일반 쌀보다 두 배가량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끌고 있다.

18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설 명절을 앞둔 1월 15일부터 20일간 소포장(1kg, 4kg, 6kg, 8kg, 10kg)한 선물용 백세미 판매액이 9000만원을 기록했다.

백세미는 평상시에도 10kg을 기준으로 2~3만원대인 일반 쌀보다 2배가량 비싼 5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백세미<사진>는 2016년부터 곡성군과 석곡농협이 새로운 벼 품목 육성을 위해 경기도 육종업체에서 ‘골든퀸 3호’를 도입해 브랜드화한 것이다.

현재 곡성군에서는 227 농가가 총 203ha의 면적에서 백세미를 계약 재배하고 있다.

이처럼 성과를 내고 있는 백세미의 인기 비결은 단연 맛이다.

구수한 누룽지 향과 기분 좋은 탄력감이 식욕을 돋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단백질 함량이 낮아 24시간이 지나도 향과 찰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2017년산 백세미는 2년 연속 완판됐고, 최근에는 홍콩에 7t을 수출하기도 했다.

2017년 대한민국 유기농 박람회에서 국회의장상을 받은 것에 이어 지난해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으며 전국적인 명품 쌀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곡성군과 함께 중국에서 판촉 행사를 진행했던 중국 섬서성 서안방송국에서 관계자 6명이 백세미 수매현장을 직접 방문했고, 백세미를 ‘최고의 맛’이라고 극찬하며 올봄 중국에서 열리는 농업박람회에 곡성군을 초청하기도 했다.

인기에 힘입어 곡성군과 석곡농협은 부가가치를 높이고 백세미 소비 시장 확대를 위해 백세미 가공상품 개발 및 판매에도 힘쓰고 있다.

가마솥에서 만든 백세미 누룽지, 백세미를 활용한 엿과 조청 등이 점차 인기를 끌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백세미를 곡성군의 대표 명품 유기농 쌀 브랜드로 키워, 전국 최고의 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

보성군, ‘남북교류협력위’ 구성…대북협력사업 발굴

보성군은 남북 평화시대를 맞아 ‘보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김철우 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및 문화, 예술, 농업 등 남북 관련 민간인과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사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발맞춰 보성군에 맞는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식량난 극복을 위해 보성 씨감자 재배기술을 전파하는 방안과 대북 농기계 지원사업 등도 주요 협력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정부의 대북사업 정책에 발맞춰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보성군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앞으로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주요 동력이 남북교류협력으로 생각된다”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남북교류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곡성 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이 최근 ‘멜론마을’ 예정지인 곡성읍 대평리 한 마을회관을 찾아 개발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멜론마을’ 조성…특화작목 육성

멜론사업단, 브랜드 전국 인지도 극대화…관광콘텐츠 개발계획 수립

곡성 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이 지역 대표 특화작목인 멜론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 곡성읍 대평리 일원에 ‘멜론마을’을 조성한다.

사업단은 멜론마을 조성을 통해 곡성 멜론 브랜드의 전국 인지도를 극대화하고, 재배 농가의 수익을 증대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외부 전문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멜론 관광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에는 사업예정지 마을회관을 찾아 컨설팅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멜론 농가와 공유했다.

군은 곡성읍 대평리의 농산물 가공공장을 리모델링해 홍보, 전시, 체험, 판매,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융복합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마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멜론 생산 농가를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 멜론 마을만의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 기차마을 관광객을 멜론마을로 유입시킬 수 있는 동선 전략 등도 논의했다.

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멜론마을 조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은 곡성군의 특산물인 멜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멜론 재배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곡성군 농정과장을 단장으로 2018년 4월에 출범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고흥군수협, 작년 순이익 66억원

창립이래 최고…전국 수협 중 4위에 올라

고흥군수협이 창립 이래 최고인 66억원의 이익을 창출했다.

19일 고흥군수협에 따르면 수협이 최근 총회를 갖고 2018년 사업을 결산한 결과 매출액이 전년보다 456억원이 증가한 7425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또 수익결산은 75억 100만원의 잉여를 창출해 법인세 9억2400만원을 공제하고 전년보다 3억5800만원이 증가한 65억 7700만원의 순이익을 시현했다.

이에 따라 고흥군수협은 전국 4위의 수협에 이름을 올렸다.

수협보험연도대상부문에서도 전국 2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고흥군수협은 이 같은 결과가 지난 해 각종사업이 크게 신장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생김 위판액 상승과 지역특산물 가공사업의 호조, 어촌지역 금융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에 진출한 영업점 등이 고루 향상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홍재 고흥군수협 조합장은 “사상유래 없는 괄목할만한 이러한 성과는 조합을 믿고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협조해준 조합원과 고객 덕분이다”며 “조합원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제적 공동체 이익 실현을 위한 지도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협동조합의 본질적 이념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

구례군, 독립유공자 후손 집에 ‘명패 달기’ 행사

구례군은 최근 전남 동부보훈지청장(지청장 유형선)과 함께 구례군 광의면 연파리에 있는 독립유공자 강철수의 유족 강이남씨의 자택<사진>에 독립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리는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감사하고 예우를 강화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실시하는‘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행사의 하나로 마련됐다.

독립유공자 고(故) 강철수씨는 1919년 3월 2일 천도 교인들과 함께 주민의 독립사상을 고취하고자 비밀리에 고 공서 게시판 등에 독립선언서를 붙인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유족 강이남씨는 독립운동 유공자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잊지 않고 생활하고 있으며 평소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고흥군,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 추진

청년 13명 선정 1인당 3000만원씩 지급

고흥군이 부모의 대를 이어 가업을 이끌 청년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을 펼친다.

고흥군은 4억원을 들여 가업 승계를 원하는 청년 13명을 선정해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 19~49세 청년으로 직계 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받은지 5년 이내면 된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이며 다른 시군 거주자도 신청일까지 고흥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고흥군은 비닐하우스 등 각종 농업 시설물과 어업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구매, 농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점포 리모델링 및 홍보 물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가업승계 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

구례군, 기초생활수급자 노후주택 개량사업 추진

구례군은 2월말부터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추진한다.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대상자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제도로,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진행한다.

올해 사업량은 70가구며, 대상 주택상태를 조사한 후 노후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은 최대 380만원, 고령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돕는다.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4%(4인기준 202만9958원)이하로 완화되는 등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